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
제1독서: 집회3,2-6.12-14
제2독서: 골로 3,12-21
복 음: 루가 2,22-40

순정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골로 3,14)

강론

소리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요

안철문 신부 / 관리국장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의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어느 어린이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한다. “어머니가 지어 주신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요” 그 어린이는 꽤 부유한 집에서 살지만, 자기 친구 집에 가보니 자기네보다 못 살지만 그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스레 따뜻한 밥을 지어 주는 것을 보고 펍 부럽더라는 내용이였다. “어머니가 지어 주신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요”라는 작은 외침은 차가운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정부가 지어 주는 밥을 마지 못해 먹고 다니는 우리 자녀들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기에 과연 나에게게는 가족들의 애절한 호소가 없는 가정인지 돌아봅시다.

가정이 안정된 삶의 터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하고 삶의 기쁨과 의미를 지탱해 주지 못할 때, 가족의 구성원들은 흩어지며 특히, 청소년들은 어둡고 추운 거리로 나와 스스로는 원인과 처방을 알 수 없는 공허를 말초적 쾌락으로 채워 보려고 방황합니다. 이러한 모습과 과정에서 바르고 따뜻한 부모나 가정이 결여된 윤리나 규율의 강제는 별힘을 가지지 못하며 이것은 현재와 미래 사회에 크나큰 문제로 직결됩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은 “우리 불란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좋은 무기와 군대가 아니라 더 많은 그리스도의 가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그곳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양식으로 생활하면서 넓고 편편한 길만은 바라지 않고 좁고 험한 길이라도 믿음 안에서 가족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가정이며, 그곳에 현재와 미래에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새해를 기다리면서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따뜻한 밥상을 서로를 위해 준비해 봅시다.

정년(停年)

사람이 늙기 시작하는 것은 10세부터다. 20세부터는 청각(聽覺)이 차차 둔해지기 시작한다. 50세에는 미각(味覺)이 둔해지고 60세에는 취각(臭覺)이 약해지며 70세가 되면 장년기 힘의 3분의 1밖에 쓰질 못한다. 영국의 한 생리학자의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나 자질은 생리적인 연령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판단력이라든가 양식·경험·지휘능력 등은 나이와 함께 증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경륜과 능력이 젊은세대들과 어우러져 사회발전을 촉진시키고 기업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게다. 그런데 요즘 우리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년을 앞둔 공직자들은 공로퇴임으로 내몰고 기업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30~40대까지 명예퇴직을 시키고 있다. 퇴직 후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있다면 문제될 것도 없다. 퇴직과 동시에 아버지의 위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게 문제다. 퇴직금을 불러 보려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거나 사기꾼에게 속아 이마져 날려 보낸 퇴직자들도 많다. 청장년기에 열심히 일하고 노년기에는 인생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프랑스에서는 연금을 빨리 타 노후를 즐기려고 정년을 낮춰주길 바란다 고 하니 부러운 나라다. ☐

순정이 산책



2000년 대희년

희년의 그리스도 신앙적 의미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1. 구약성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이상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장차 올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실현될 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 온 나라가 땅은 남의 것이 되고, 사람도 주권을 잃어 말하자면 로마 황제의 노예로 전락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민족을 그 곤경에서 구해 주실 메시아, 민족의 고엘(되사주는 이)을 기다리는 마음이 한결 더 절박해졌다.

2. 어느 날 예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묵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루가 4,18-19) 예수님의 이 선언은 한마디로, 가난한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희년'이 왔음을 의미한다.

3.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나자렛 회당의 선포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많은 군중이 절름발이와 소경과 곱배팔이와 병어리와 그 밖의 많은 병자를 예수의 발앞에 데려다 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병어리가 말을 하고 곱배팔이가 성해지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을 군중이 보고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마태 15,30-31) 이처럼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손상되었던 생명들이 되살아났다. 세리가 사도로 변하고 창녀가 성녀로 바뀌었다. 틀어지고 엇나갔던 것들이 그분의 손길에 닿자마자 모두 제 모습을 되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에서 회복한 환자처럼 큰

기쁨을 맛보았다.

4.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다. 그가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내리는 이 상반되는 평가와 태도는 십자가에서 그 절정에 도달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 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요, 무력함 그 자체였다.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께서 메시아가 아니셨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말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활을 체험하고 볼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같은 십자가가 정반대로 이해되었다.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무한한 힘을 보여 주는 증거였고, 죽음을 이긴 승리의 상징이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다.

5.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깨닫고 믿기까지는 결코 쉽지는 않다. 잃었던 '땅'을 되찾아주고,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기쁘게'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희년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대중적으로 메시아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은 다분히 물질적, 현세적, 사회-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기대 수준을 들어 높여, 사람들의 더욱 근원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다. 그래서 참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열매인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알게 되었다.

- 「대희년 길잡이 2권」에서 발췌 -

국가대표 출신
세심검도체육관
사회체육 3급, 경기지도자 2급
(문체부장관)의 국가공인 검도장
김 태 경(빈첸시오)
☎ (代) 72 - 8009(전북의대 입구)
223 - 6655(효지동 서부시장 입구)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렌,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지도 담당
동서 관통로 다과교 입구
김태우(알퐁소)·황진숙(안젤라)
☎ 88 - 7717~8

공인회계사 강기문사무소
"교우 세무상담 무료"
강 기 문(마태오)
박 소 진(수산나)
경원도 파출소 앞, 소서빌딩 3층
☎ 87 - 7007
FAX. 87 - 7000

로 알 석 유
쌍용 석유, 경유 신속배달
말통배달·보일러 청소
이 명 길(요셉)
☎ 245 - 9277, 3533
휴대폰 011 - 654 - 9277

잠깐

가정 교회의 모습을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벌써 한 해의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이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의 생활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또한 다가오는 새해의 설계를 하나하나 세워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가정에서도 참된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저마다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반성하며, 새해에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좀더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사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회의 활력있는 기초적 세포가 되기 위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며, 가정을 교회의 가정적 성소(聖所)로 삼는 데" 있습니다(평신도 교령, 11항).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정의 중요성을 자주 역설하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해 이 땅을 처음 방문하시어 "가정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맨먼저 신앙을 전해 주는 곳이요, 성소가 배양되는 가정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가정은 하나의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심어 주고 신앙을 가르치는 첫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가르침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나아가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가정을 이룸으로써 오늘날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정의 위기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수행해 나가야 할 소명 가운데 그 으뜸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의 수호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사회의 더욱 밝은 내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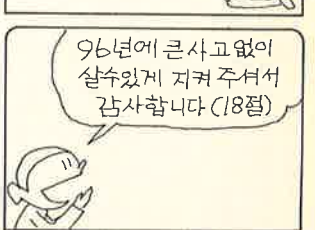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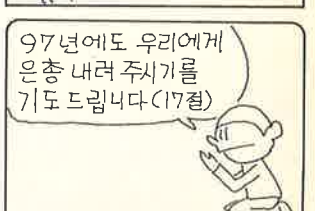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97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미사 및 성지안내 봉사자 찾습니다.
언어 - 영어, 문의 ☎85 - 0041 사목국 홍보과

1. 교구장 평화의 날 미사: 1월1일(수) 오전 10시30분, 중앙 성당
2. 교구청 휴무: 1월1일~2일 신정관계로
3. 교구 신년 하례식: 1월2일(목) 오전 10시30분 윤호관
4. 부제서품 예정자 피정: 1월2일~29일 수류
5. 성모 기사회: 1월4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6. 제18차 전주 선택 주말: 1월31일~2월2일, 천호 피정의 집, 대상 - 젊은이
문의 및 접수 - ☎85 - 3637, 85 - 0041(교육국)

요십이 (1219) 김병오



그리스도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 매주 첫주토요일 오후2시(중·고생) / 매주 첫주일요일 오후2시(대학생·일반)
- 장소 : 은평의 마을 내 수도원
- 문의 : (02) 357 - 9785 사제관 359 - 2927 사무실

(주)이삭온돌침대 파워스톤

수맥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EMI) 박천운(베드로), 임선재(데레사) 전남북총판
☎ (0652) 251 - 9836~7
호출기 015 - 675 - 9824
휴대폰 011 - 651 - 7124

월드커텐 상사

원단, 부자재 도매 각종 커텐 전문
노길환(요한) 윤정희(그라시아) 남문코로통상과 앞
☎ 231 - 5857~8

LG 에어컨

에어콘·온풍기·공기정화기·계빙기
열소용냉장고·중앙집중식 냉난방
97년도 신제품 에어컨 예약중
15% 할인+10개월 무이자 할부
원승연(도밍고)
백제로 빙상경기장 맞은편
☎ 241 - 2000, 227 - 0902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이혜경(글라라)
북천주 전화국~법원 중간
☎ 253 - 3232, 254 - 2631

10년 전통의 - 선경 컴퓨터 타운

삼성, 삼보 및 SKC 컴퓨터 총판
이병균(프란치스코) 정미선(글라라)
보험청구 가능한 자 및 아르바이트생 구함
평화주공1단지 입구
☎ (代) 231 - 2237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F A X 82-9664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예수성탄대축일 행사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주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1. 송년미사 : 31일(화) 후 8시
- 2.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의무축일) : 전 5시 30분, 전 10시 30분, 후 7시
- 3. 예비자 모집 : 예비자 한 분씩 주님께 인도합니다.
- 4. 사목회 상임 : 1일 후 8시
- 5. 성시간 : 2월 저녁미사 후
- 6. 모임 : ① 반회장 모임-3일 전 10시 30분
② 울뜨레아-5일 공식미사 후
- 7. 금주전례 : 새벽-중노 1구역, 저녁-중노 2구역
공식 해설-이수원, 독서-①이봉기 ②문화형
신자들의 기도-박승길, 문선자
봉헌-전도열 부부
- 8. 차주전례 : 새벽-중노 1구역, 저녁-중노 2구역
공식 해설-최광식, 독서-①노판석 ②황의숙
신자들의 기도-손만술, 신순이
봉헌-박대복 부부
- 9. 금주청소 : 인후 3, 7반
- 10. 차주청소 : 인후 8, 9반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박상기

-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1. 송년 성시간(성체강복) : 31일(화) 후 11~12시
- 2.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의무축일) 미사
신년미사-31일(화) 후 12시
공식미사-1월1일(수) 전 10시 30분
저녁미사-1월1일(수) 후 7시
(새벽미사와 학생미사는 없습니다)
- 3. 성체강복 : 1월2일(목) 저녁미사 후
- 4. 차주 모임 : 사목회, 대건회, 성우회
- 5. 성서교실 개강 : 7일(화), 여호수아서 1~24장
- 6. 교무금 신임 안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임 바랍니다.
- 7. 금주전례 : 해설-김순형, 독서-박남수 부부, 봉헌-한용석 가족
- 8. 신년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강주호 부부, 봉헌-임병련 가족
- 9. 차주전례 : 해설-유두석, 독서-김인봉 부부, 봉헌-손승환 가족
- 10. 성당청소 : 4일(토) 다위의 답Pr., 셋별Pr.

상관 주임신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김병업
F A X 85-6652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 예수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 ◎ 오늘은 성가정 축일 :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신정) : 1월 1일 10시미사
- 1. 차주모임 : ① 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7일(토) 후 7시
- 2. 성소후원회비 : 세대별로 1천원이상-구역장님께 납부
- 3. 감사 : ① 제대꽃 봉인-오카타리나, 양요셉(2만)
② 초·중·고학생 떡국-자모회
- 4. 성탄절 고백성사 못보신 분은 서둘러 보시고, 연중 교무금도 완납하십시오.
- 5. 성당청소 : 금주-바다의 별Pr.
차주-천사들의 모후Pr.
- 6. 금주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강덕용 ②송정자
봉헌-새영세자
- 7. 성마리아 대축일 전례 : 해설-이춘봉, 독서-①한동욱 ②이석남
봉헌-김종서 가정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F A X 86-4929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예수성탄 대축일 행사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금주모임 : 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유아방
- 2. 차주모임 ① 꾸리아-1월5일(일) 후 2시, 강당
② 사목회-1월7일(화) 후 8시 30분, 회합실
③ 성심회-1월8일(수) 전 10시 30분, 회합실
④ 자모회-1월9일(목) 레지오회합 후, 회합실
⑤ 울뜨레아-1월9일(목) 후 7시 30분, 회합실
- 3. 예비자 교리 안내 : 매주 수요일-후 7시 30분, 예비자 교리실
매주 일요일-후 5시 30분, 예비자 교리실
※ 예비자분들은 빠짐없이 출석 바랍니다.
- 4. 금주전례 : 해설-남정수(제노베파)
독서-① 유대희(베드로) ② 민혜리(헤레나)
- 5. 청소년내 : ① 금주-정희의 동정녀Pr.
② 차주-사랑하을 어머니Pr.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송영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환

- ◎ 사랑 나눔 잔치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송년미사 : 31일(화) 후 11시
※ 12월31일 7시 미사는 송년미사 관계로 없습니다.
- 2.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의무축일) 미사 : 1월 1일(수)
전 5시 30분, 후 5시, 7시
※ 의무축일입니다. 빠짐없이 참여하십시오.
- 3. 차주모임 : ① 계속글라라 형제회-후 1시 30분
② 애덕의 모후 꾸리아-후 3시
③ 요셉회-후 6시
④ 울뜨레아-후 8시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녀원 232-5004 주임신부 이상설
F A X 232-5003 사무실 232-5005 사목회장 함의욱

- ◎ 우리 모두 성전 신축 사업에 동참합니다.
- ◎ 예비자 입교식 : 97년 1월 7일 후 8시
- ◎ 교무금 미납자는 12월말까지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전 신축헌금 신입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1. 송년미사 : 31일 후 11시
신년미사 : 97년 1월 1일 9시, 10시 30분, 4시, 7시 30분
- 2. 주간모임 : ① 형제기도회-6구역 30일 후 8시 30분
② 빈첸시오회-31일 전 10시
③ 자모회-3일 어머니미사 후
- 3. 성전 신축 봉헌금 신입구좌(1구좌 100만원)
이원희3, 차동주2, 박종수2, 김한수1, 김창수1, 김용현0.5
소계-9.5, 총계-549.2
- 4. 성전 신축 봉헌금 납부(단위 : 만원)
고동춘20, 박준상3, 김덕룡100, 조숙희5, 김영수300,
장순이5, 이원희20, 임순희10, 서영건200, 엄금래27,800원
이순자5, 소계 : 6,707,800원 총계 : 114,752,620원